

전도서 개관

1. 개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모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문학입니다. “헛되다”는 반복되는 선언은 인생의 유한성과 인간지혜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며,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헬렛”(קהלת)이라 불리며, ‘모으는 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版的 “전도자”라는 표현은 이 전통을 따른 것이지요.

2. 저작 연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문체나 어휘(예: 아람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 후기 히브리어)로 보아 기원전 5~3 세기 경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자기 언급("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을 존중하여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의 전통을 계승한 지혜자의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3. 저자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1:1, 1:12, 2:9 등에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 밝히는 점, 풍부한 지혜와 부, 건축 활동 등 솔로몬의 삶과 일치하는 묘사가 등장하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익명의 지혜자 혹은 후기 솔로몬 전통에 선 인물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 솔로몬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에서 굳이 문자적 저자성과 문학적 장치 사이의 갈등보다는 성령의 영감 아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4. 기록 목적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됨”(הֶבֶל, hevel)이라는 선언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노력, 쾌락, 재물, 심지어 지혜 자체도 인생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임을 결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12:13).

이 목적은 실존적 고뇌와 신앙적 통찰의 긴장 속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단락 구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표적 구조입니다):

1. 서론 (1:1-11) - 모든 것이 헛되다
2. 지혜자의 자전적 탐구 (1:12-2:26) - 지혜, 쾌락, 수고의 헛됨
3. 세상사의 모순과 하나님의 섭리 (3:1-6:12)
4. 삶의 지혜와 인생의 불가해성 (7:1-11:6)
5. 청년을 위한 권면과 결론 (11:7-12:14)

6. 중심 메시지

-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인생의 의미를 보장하지 않는다.
-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 인간은 유한하고, 시간과 죽음 앞에 무력하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라.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회의와 신앙의 확신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묵상의 여정을 제공해 줍니다.

7. 신학적 이슈

- **허무주의 대 신정론:** 전도서의 “헛됨”은 단순한 허무주의인가, 아니면 신적 섭리를 전제한 유한성 인식인가?
-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여, 전도서가 영원한 소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 **일, 즐거움, 그리고 경건:** 세속적인 쾌락의 탐구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성경 정경 안에서의 위치:** 전도서가 성경 전체 메시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특히 복음과의 연관성은?

8. 개혁주의 입장에서 전도서 해석

개혁주의는 전도서를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으로 바라보는 지혜서로 이해합니다.

- **창조의 질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전도서 전반에 흐르고 있으며,
- **인간의 타락과 유한함에 대한 깊은 인식**은 전도서를 통해 오히려 구속자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서는 전도서가 “헛됨”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참된 의미, 참된 기쁨, 참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전도서가 간접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9. 마이클 V. 폭스(Michael V. Fox)의 프레임 내러티브 이론 - 이정규 목사 연구논문 방법론

폭스는 전도서가 “프레임 내러티브 구조”(Frame Narrative)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문은 1:1-11 과 12:8-14 의 서론과 결론으로 ‘액자’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안에 코헬렛(전도자)의 자전적, 실존적 목상이 펼쳐집니다.
- 폭스는 특히 전도자와 편집자(혹은 후대 화자)를 구분함으로써, 전도자의 회의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책이 정경적 지혜로 마무리되도록 구성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구조는, 전도서가 단순한 비관주의 책이 아니라 신학적 통일성과 목적성을 지닌 지혜문학임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독자들에게도 이 이론은 전도서 내 긴장감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